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교구별 국내 선교 유적지 순례 코스

날짜	요일	교구	장소	해설사
4월 13일	토	교구위	전주-금산-군산	송현강 목사(한남대 연구교수)
4월 20일	토	2	화성-수원	홍민기 목사(감신대 겸임교수)
4월 27일	토	4	정동-마포	홍승표 목사(연세대 신학과 강사)
		8	양화진, 절두산	현장 해설사
5월 3일	금	3	강화도	홍승표 목사(연세대 신학과 강사)
		5		
5월 11일	토	1	강화도	홍민기 목사(감신대 겸임교수)
		7		
5월 18일	토	6	화성-수원	홍민기 목사(감신대 겸임교수)
5월 25일	토	9	강화도	홍승표 목사(연세대 신학과 강사)

기도가 번져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 웨스트민스터홀

서울강남노회 제74회 정기회

4월 9일(화) 오전 9시 소망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제74회 정기회가 4월 9일(화) 오전 9시 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회원으로 손달익 위임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목사가 참석하며 장로총대로는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이민호 장로가 참석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2) 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2024 봄 학기 모집

서울교회는 문화 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2024 봄 학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4년도 봄 학기:4. 13일(토)-6. 16(주일), 10주 코스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반은 자체 운영)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02) 558-1106(교회 대표전화)

5. 구글신청서 양식: 아래 QR코드 참조

6. 24년도 봄 학기 운영 클래스 :

클래식기타(기초반), 성악, 댄스 클래스 추가

※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 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요일 기타·베이스 기타반, 미술은 강사 사정으로 휴강합니다.

※ 재능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강사 지원을 환영합니다.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윤식 집사
	클래식기타(중급반)		12:40-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성악	즐거운 성악교실	토	11: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연기	나를 찾아가는 힐링연기	토	12:00-	10주	702	박재현 선생
댄스	조이 워십(한국무용)	목	13:30-	10주	704	조경숙 권사

예수, 사랑의 복음

막 5:25-34



손달익 위임목사

구원의 능력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던 바닷가에 회당장 아이로가 찾아왔습니다.(22절) 식민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 센터였고 로마의 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의 책임자인 아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친히 집으로 오셔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다가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걸옷 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고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던 길을 재촉하시며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며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며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회당장 아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던 주님은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을 접하시면서 발걸음을 멈추시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이동하고 계시는 중에 주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시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때문에 허락도 없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년 된 자기의 혈루증이 나았음을 간증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평생 괴로웠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람들 가운데서 격리되어 부정함 사람으로 취급당한 이 여인은 하나님과도 단절된 삼중고의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첫째는 건강한 몸을 영위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본문의 이 여인은 행복한 인간 조건을 하나도 구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신체적 건강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의 자격까지 얻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놀라운 전인적 구원을 단순히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셨 으면서도 ‘나의 능력이 너를 낫게 했다’고 과시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딪치고 밀치면서 신체적 접촉을 했지만 기적은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치유와 구원도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고 강권하십니다.

2.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26절).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결국엔 재산만 탕진했을 뿐 병은 더 악화되었고 마음의 상처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 가시는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버려진 인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외면하고 세상이 혐오하는 버려진 인생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끝이 없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과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평생 순종해 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비극과 통한의 통곡 가운데 버리시지 않고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떳떳하게 나설 수도 없는 부정함 환자가 된 자기를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 주님을 믿었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소문과 냄새는 형체가 없으나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 멀리 퍼져 나갑니다

3. 구원 받은 사람의 길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여인을 고치신 후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 가서 이미 숨진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며 일으키시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마 9:26)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문의 주체가 된 것은 변화된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12년을 괴롭히던 병이 떠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은혜의 증거, 구원 받은 사람의 증거가 소문의 주체였고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소문과 냄새는 형체가 없으나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 멀리 퍼져 나갑니다.

누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종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의 소문, 예수 사랑의 소문, 거룩하고 정의로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천대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사랑의 큰 이야기를 날마다 소문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의 큰 이야기가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소문을 퍼뜨리며 사는 성도들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일을 행하십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소문이 아닌 예수 사랑의 소문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 교회로 다시 일어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고 사랑의 주님을 전함시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방법, 도시락 봉사



최중희 권사
(권사회 회장)

뒤늦게 2월에 시작된 권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년까지 권사회 주축으로 행해져 온 식당 배식봉사가 전도회로 정해지면서 임원들과 제일 먼저 고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식당 배식봉사가 권사회를 주축으로 이루어져 이를 통해 권사회원들의 교제와 전도회의 협력을 통한 전체적인 화합의 축이 되어 왔으나 봉사의 주요 대상이 갑자기 없어진 것은 임원들과 더불어 충분히 고민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회와 더불어 교회의 중요한 부서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위해 임원들과 자주 모이면서 권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논하며 나눈 이야기 끝에 새롭게 거듭나는 권

사회, 배려와 사랑을 행동으로서 이웃에 실천하는 권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긴 시간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상기하고 이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권사회가 되었음은 하는 바램에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대치4동 행정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 30가정을 소개 받았고 사골을 끓여 만든 국과 밥과 김치와 70인전도대에서 준비한 달걀과 순례자와 휴지를 넣어 가가호호 방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 예전에 서울교회에 다녔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아쉬워하시는 분, 건강의 이상으로 거동이 불

편한 분, 여러 모습의 가정들을 보고 사정을 들으면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감사한 마음으로 권사회에서는 매 주일 1시부터 웨민홀에서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나아가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남녀노소 누구든 매 주일 1시 웨민홀에 오셔서 자유롭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서울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새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기도의 반석이 되는 권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함께해 주시는 임원들과 따뜻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동참해 주시는 노권사님들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권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선교 유적지 순례 코스

* 각 코스 별 장소는 선택하여 방문 할 예정입니다.

1. 전주·금산·군산 코스

전주 예수병원 → 전주기독교근현대역사기념관 → 신흥학교 → 서문교회, 한옥마을, 전동성당 → 전주대학교, 호남기독교박물관, 금산교회, 군산 구암교회 3.1운동기념관 → 군산 근대미술관·근대건축관 → 근대역사박물관 → 관세박물관 → 해망굴 → 히로쓰 가옥, 동국사 → 발산초등학교(시마타니) → 이영춘 가옥

2. 인천 코스

영화초등학교 →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구 감리교여성교사 숙소)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일본우선주식회사 → 인천아트플랫폼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박물관 → 인천 개항박물관 → 대불호텔 → 청일조계지 경계 → 화교중산학교(청국영사관터 및 회의청) → 공화춘 → 인천중화기독교 → 인천제일장로교회 → 제물포 구락부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 흥예문 → 성공회 내동성당, 내리감리교회

3. 강화도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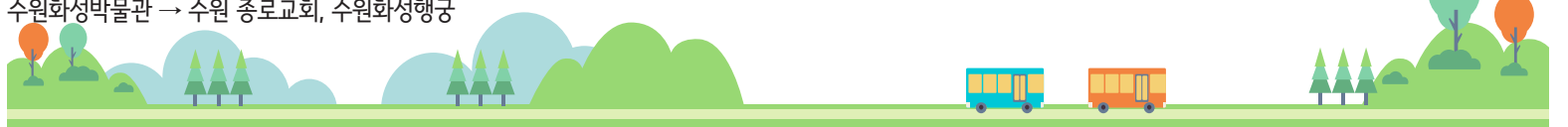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 연미정 → 성공회 강화읍교회 → 용흥 궁 → 강화 부근리 지석묘 → 교산감리교회 → 강화평화전망대 → 교동교회, 박두성 장로 생가 → 성공회 운수리교회 → 광성보(또는 초지진)

4. 정동·마포 코스

정동 :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증명전 → 예원학교, 이화100주년기념관, 이화여고 옛 정문 →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 구 러시아공사관 → 고종의 길 → 구세군중앙회관 → 영국대사관 →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덕수궁 대한문 → 마포·양화진 외국인 묘역 → 절두산 순교공원 → 정교회대성당(양화진 → 연세대, 이화여대)

5. 화성·수원 코스

한국경교역사연구원, 대진경교유형중국어비 모조비 → 화성 제암리교회, 순국기념관 → 수촌교회 → 수원 동신교회(노리마초 선교사 기념비) → 매향여학교, 삼일중학교, 수원화성박물관 → 수원 종로교회, 수원화성행궁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금요일 특별연합기도회



부활절 성찬식



부활절 칸타타-가브리엘찬양대



사진: 정승균 안수집사

교회학교별 부활절 행사



한국기독교 연합기관의 분열



조선예수교장로회 창립총회



예수교서회의 초기 모습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의 역사는 연대와 연합의 역사이기도 하다. 내한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교파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가진바 있었고 다양한 선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여러 연합기관을 설립하였다. 많은 학교와 병원이 교파 연합으로 운영되었고 특정 사업을 위한 조직도 무수했다. 1890년 문서선교를 위해 설립된 조선성교서회(현 대한기독교서회)와 1895년 성서번역과 출간을 위해 설립된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현 대한성서공회), 그리고 신앙교육을 위해 1922년 설립된 조선주일학교연합회(현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조율하고 함께 운영해 나가기 위한 연합기관도 있었다. 가장 먼저 조직된 것은 1905년 장로회 4개 선교부, 감리회 2개 선교부의 협의체로 출범한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였다. 그리고 1918년 2월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인 교인도 참여하는 연합기관인 조선야소교장감연합공의회(朝鮮耶蘇教長監聯合公議會, Korean Church Federal Council)가 설립되었다. 이 두 단체는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朝鮮예수교聯合公議會, 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로 통합되었는데, 현재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뿌리가 된다.

이후 1989년까지 NCCK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및 대정부 교섭, 사회적 활동 등을 총괄하여 논의하고 조율하는 유일한 연합기관이었다. 아쉬운 점은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건과 분열 과정에서 많은 교단들이 NCCK(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일부 교단들의 연합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NCCK는 국내외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고 정부 및 시민사회, 세계 교회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NCCK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민주화·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종교들과의 대화와 협력에도 나서면서

한국교회 내의 진보적 입장만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얻기 시작했다. 그러다 1988년 NCCK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교계의 큰 논란을 야기했다. 한국교회가 ‘반공주의를 우상화하고 북한 정권을 적개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까지 저주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 죄’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었다. 이 선언은 사회적으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민간 부분에서 제출한 본격적인 통일선언으로 획기적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 받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계 내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다. 반공을 죄라고 말하는 NCCK가 더 이상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었다.

이런 여론은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한기총은 그동안 NCCK가 지나치게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개입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복음 중심성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교계의 모든 교파와 단체들이 참여하여 교계의 분열을 극복하는 통합 기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한기총은 교계의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연이여 개최하며 보수 정치세력으로 변모하자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2011년 대표회장을 둘러싼 금권선거 논란으로 대형교단들이 회원 탈퇴한 것이 결정타였다.

회원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한기총은 기독교 연합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명분을 상실하였다. 이후 한기총은 대형교단 이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단 시비가 있는 단체들을 영입하는가 하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정관을 개정하는 등 파행적 운영을 보였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계속 부패해갔다. 그 결과 2020년부터는 아예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작년에야 겨우 자체적으로 대표회장을 선출했다.

한기총의 분쟁으로 탈퇴한 교단과 단체들은 2012년 3월 3일 새로운 보수 연합기관, 한

국교회연합(한교연)을 발족하였다. 그러나 한교연은 한기총을 대체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창립과 동시에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지며 새로운 단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교단간 다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2014년 대표회장에 출마한 모 인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선거를 강행하여 당선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다. 실망한 많은 교단과 단체들이 빠져나가면서 한교연은 연합기관으로서의 힘을 잃었다.

결국 2017년 8월 한교연과 한기총의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연합기구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창립되었고 이것이 같은 해 12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교계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큰 규모의 연합기관이 되었다. 한교총은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한기총의 이단 회원 문제, 한기총·한교연과 전광훈 목사의 친밀한 관계, 통합 후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다툼 등은 통합 논의를 번번이 좌절시켰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보수 연합기관이 셋으로 쪼개지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에도 한교총과 한기총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일단 통합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한교총은 한기총의 이단 문제가 통합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에 여전히 이단 또는 이단성을 보이는 회원이 있다는 뜻이다. 한기총은 이 문제를 상당히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달라 실제 통합에 이르는 여전히 쉽지 않다. 실제로 있어서 이미 한기총은 이단성 있는 교단 단체들과의 밀착 등으로, 한교연은 대부분 주도교단들의 한교총으로의 이동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길로 보기에 아마 한동안은 NCCK까지 포함하여 4개의 연합기관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은 보수를 대변하는 한국교회총연합과 진보를 대변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표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앙강좌부 장소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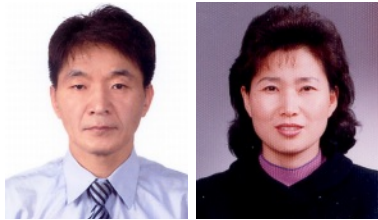
신앙강좌부(지도:양정호 목사)의 수강인원의 증가로 금일부터 장소를 이전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인 만큼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변경 장소:602호
- 강좌명:"하이텔베르크 소요리 문답"
- 문의:김동진 부장

교회를 위한 기도회

권사회가 주관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매 주일 오후 1시 15분-45분까지 101호에서 있습니다. 김익환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 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식사 제공



- 6교구 양동덕 안수집사나미경 권사 가정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주일 예배 성도의 증가로 주차장이 많이 혼잡합니다. 주차장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하기
2. 앞열 혹은 2층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엔 연락처 올려놓기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70인전도대 4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1	자원자	스데반회	4.3	도르가, 루디아, 뵈뵈
4.7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4.10	국회의원선거
4.14	자원자	바울, 엘리야	4.17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4.21	자원자	모세	4.24	리브가
4.28	자원자	이삭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4월8일	월	삼하 1-3
4월9일	화	삼하 4-9
4월10일	수	삼하 10-12
4월11일	목	삼하 13-15
4월12일	금	삼하 16-18
4월13일	토	삼하 19-21
4월14일	주일	삼하 22-24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레11,12	시13,14	잠26	살전5
레13	시15,16	잠27	살후1
레14	시17	잠28	살후2
레15	시18	잠29	살후3
레16	시19	잠30	딤후1
레17	시20,21	잠31	딤후2
레18	시22	전1	딤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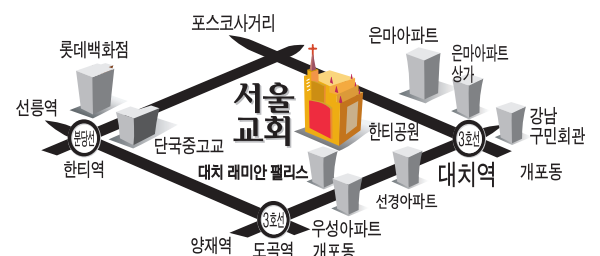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 비추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2.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시대의 파도를 넘어 부흥하도록 역사하시고, 제4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70인전도대와 모든 전도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3. 국회의원 선거와 이후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화된 대한민국의 나아가지도록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